

올바른 먹을거리로 생활혁명을 꿈꾼다

인류의 건강을 사수하는 휴먼엘씨에스코리아

서구화되고 급변하는 현대문명 속에서 현대인은 생리대사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물질적 산물만으로 건조한 삶을 영위하곤 한다.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야심찬 포부로 벤처에 뛰어든 알찬 기업, 휴먼엘씨에스코리아. 건강한 먹을거리만큼이나 풍성한 창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보자.

송죽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전은자대표는 합숙교육현장에서 영양사로 활약했다. 성공적인 합숙교육을 위해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전대표의 임무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급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축·수산물에 관한 연구에서 놀라운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에서만 자라는 송죽처럼 이 사회의 송죽이 되고 싶었다는 전대표, 후손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녀의 의지가 벤처기업 휴먼엘씨에스코리아의 창업을 가능케 했다.

친환경 먹을거리

환경 파괴로 인해 동식물이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인 휴먼엘씨에스코리아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농·축·수산물 전 분야에 걸쳐 연구를 거듭했다. 그중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한 백장어 연구였다. 삼년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수산업 분야 중에서도 부가가치 및 국제 경쟁력이 가장 높은 백장어를 택한 것. 오늘날 수산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항생제 남용과 오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MF-337 물질을 개발, 이를 상용화한 송황장어를 대형할인매장 등에 공급 중이다. 휴먼엘씨에스코리아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차근차근 성장의 걸음을 걷고 있다.

네트워크 파워

시장의 고정관념과 생산자들의 비호의적인 태도 때문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휴먼엘씨에스코리아는 제품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세워 어려움을 극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생산자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혜택이 합세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초기부터 사업 초기인 현재까지 각종 자금지원정책에 대한 가이드 역할과 재무, 경영, 관리, 기획 등 전반적인 사업부문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각 지방에서 진행되는 체계적인 실험과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생산기지의 R&D 네트워크 또한 휴먼엘씨에스코리아의 강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해 현대인의 식탁뿐 아니라 질 높은 생활수준까지도 책임지는 휴먼벤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날을 고대한다.



▲ 휴먼엘씨에스코리아 전은자 대표(왼쪽 두번째)와 직원들